

어느덧 11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회원토론회를 안내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관련 회원토론회>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사고 없는 일터를 표방하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 등 구조적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예방의 주체로 현장 노동자를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동안 사회운동이 주장해 온 내용을 반영한 듯 여겨집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거나, 시기별/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할 과제들을 뭉뚱그려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젠더 관련한 대책 역시 부재합니다. 한노보연은 그동안 정책의견서 등을 통해 대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현장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11월 11일 19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정의와 노동자 건강권 연속 워크숍>입니다. 한노보연 기후정의팀은 기후 재난 등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자본의 과잉생산을 막고 노동자가 생산량과 생산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현장 통제권이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핵심임을 주장하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에서는 이와 관련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사회적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워크숍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일정은 각각 11월 12일, 18일, 26일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작업중지권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자 현장 통제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현장토론이 이어집니다. 나아가, 워크숍의 성과와 과제를 이후 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역대급 폭염이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추워지다니요. 날씨는 기온과 함께 찾아오는 감기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잘 활동해 가요!